

박근혜 대통령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

“70년 전 오늘의 벅찬 감동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0년은 대한민국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참으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70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독립을 향한
열망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마침내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순국선열들의 불굴의 의지와 애국심은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강의 기적으로 부르는 대한민국 성취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불굴의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불굴의 의지로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써온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 금년은 광복과 함께
남북 분단 7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

“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야 합니다. ”

“ 북한은 민족 분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도발과 핵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면,
희망과 기적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의 꿈이 이루어진 광복 100주년을 내다보며,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이루어 나갑시다.”



“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일본 내각이 밝혀온 역사 인식은
한·일 관계를 지탱해 온 근간이었습니다. ”

“ 그러한 점에서 어제 있었던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역사는 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산증인들의 증언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공언을
일관되고 성의 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하여,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합당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 70년 전 오늘,
우리는 잃어버렸던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

“ 그리고 불굴의 의지와 하나 된 마음으로
온갖 역경을 딛고 성취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왔습니다. ”

“ 선대들의 애국심과 그 위대한 뜻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입니다. ”



“저와 정부는 중단 없는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
세계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는 부강한 나라와
원칙이 바로선 투명한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으로 통일시대의 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와 지구촌의 번영을 선도하고
문화로 인류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